

I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뉴질랜드 정부 수출 편의 제공을 위해 수출 지원 기관 안내

- 뉴질랜드 세관은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부 기관들을 안내함
- 무역 장벽 수출 헬프데스크 : 특정 질문, 무역 장벽에 대해 설명
- 뉴질랜드 무역 및 기업청(NZTE) : 수출 지원 기관
- 뉴질랜드 1차 산업부(MPI) : MPI는 전체 수출망에서 뉴질랜드의 식품 및 섬유 부문을 지원하고 수출 규칙을 설정하고 시행함
- 뉴질랜드 관세청(Customs) : 뉴질랜드 국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 무역을 촉진, 여행자와 물품 국내외 이동 검사, 불법 수출입품 압수, 정부에 대한 관세(납부)를 징수 및 다른 정부 기관에 대한 제재(벌금) 관리
- 외교통상부(MFAT) : MFAT는 뉴질랜드와 다른 국가와의 관계 형성
- 뉴질랜드 수출신용사무소(NZEC) : NZEC는 뉴질랜드 수출업체와 공급업체의 성장 도움. NZEC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재정적 보증과 보험을 제공함. 비관세 문제가 있는 경우 도움을 줄 수 있음
- 기업혁신고용부(MBIE) : 수출을 희망하는 제조업체가 장벽에 직면한 경우 해결

* 출처 : 뉴질랜드 세관(New Zealand Custom), 2022.10.14

2. 최근 6년간 패스트푸드 음식에 67억 달러 소비

- 뉴질랜드 건강연합과 헬렌 클라크 재단이 에포스 사용 자료를 분석한 수치에 따르면 뉴질랜드 수도 오클랜드 주민들이 지난 6년 동안 패스트푸드 음식에 67억 달러를 소비함

- 패스트푸드 매출의 93%는 마누카우, 웨스트 워리, 웨스트게이트와 같이 빈곤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발생함
- 뉴질랜드 건강연합의 보이드 스윈번 회장은 돈이 없고 시간도 없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약탈 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언급함
- 건강 전문가들은 패스트푸드 매출이 빈곤층 밀집 지역에서 가장 높다는 점은 건강 불평등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징조이며, 뉴질랜드 어느 곳이든 동일하게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보고서에 따르면 오클랜드 주민이 패스트푸드 포장 음식에 사용한 금액은 매년 약 1억 4천만 개의 햄버거 또는 9억 개의 조각 피자를 사 먹는 금액에 맞먹음



패스트푸드 음식을 구매하는 뉴질랜드 소비자(출처 : stuff.co.nz)

- 패스트푸드는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
- 뉴질랜드인들은 비만, 당뇨병에 노출되어 있지만,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음
- 오클랜드 지역 공중보건서비스와 뉴질랜드 건강연합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과 음료 광고를 단속하는 새로운 법안을 요구하는 중임
- 뉴질랜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크푸드 마케팅에 대한 제한 규정이 아직 없음

* 출처 : stuff.co.nz(2022.11.23.)

3. 14년 만에 가장 높은 식품 물가 상승률 기록

- 뉴질랜드 통계청 물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식품 물가가 전년에 비해 10.1%나 치솟으면서 지난 2008년 이래 14년 만에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함
- 물가로 인해 뉴질랜드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음
- 10월 기준 잡화식품이 연간 9.7% 오른 반면 과일과 채소는 이보다 더 높은 17%, 식당 및 즉석식품 7.5%, 가금류 10%, 비알콜성 음료 8.7% 상승함
- 잡화식품 중 계란과 체다치즈, 즉석라면 등이 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바나나는 연간 22.6%, 브로콜리는 33.4%나 급등함
- 계절적으로 조정한 월간 동향에서도 9월에 비해 10월 식품물가가 0.8% 상승함
- 과일과 채소의 가격은 실제로 5.2% 하락했지만 계절적인 효과를 감안한 조정치에 따르면 1.3%가 오른 것으로 나타남
- 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과일 및 채소의 계절적 조정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지만 올해는 예상과 달리 이 분야마저 상승함
- 생산자가 직면한 고물가 상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줌
- 악천후 피해와 함께 임금이 오르고 경유 및 기타 생산 비용이 오르면서 공급망 전체에 인상 여파가 전해지고 있음
- 이런 증가세는 내년이 되어서야 둔화되기 시작할 것이라 예상됨
- 뉴질랜드의 많은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적게 사고 비필수 품목을 구매하지 않으며 값싼 브랜드를 찾는 등 예전과는 쇼핑 행태가 달라짐

*출처 : newshub.co.nz(2022.11.15.)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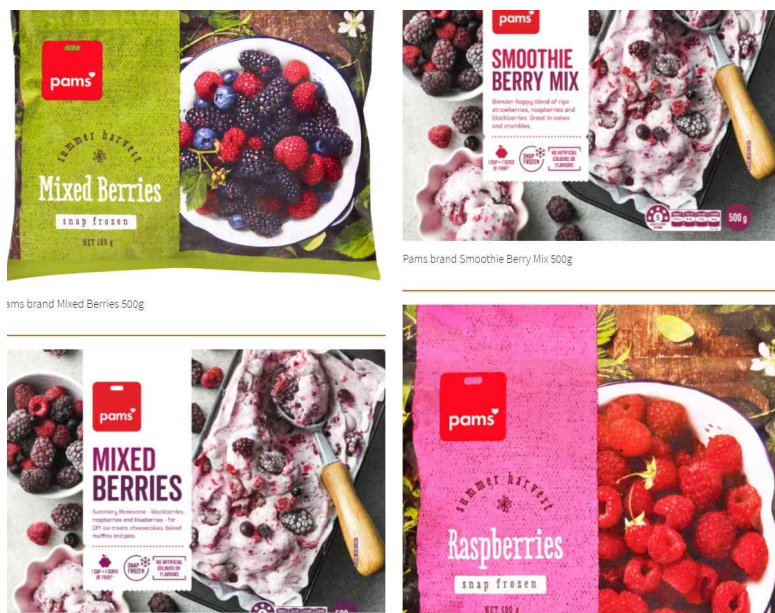
- 회수 식품명 : 콤부차(Kombuch)
- 회수사유 : Daily Organics Kombucha 알코올 함량 제한 2배이상 넘어 회수
- 회수일 : 2022년 11월16일
- 회사명 : Te Ika-a-Māui지역의 New World 와 Pak'nSave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Foodstuffs North Island.
- 비고 : Daily Organics Kombucha는 무알코올 음료로 판매되고 있어, 법적으로 알코올 함량이 1.15% 미만이어야 함
- 국제적으로 공인된 Hill Laboratories에서 테스트한 Daily Organics Kombucha의 세 종류 알코올 함량은 다음과 같음 : 콤부차 오리지널 2.8%, 콤부차 레몬 생강 3.0%, 콤부차 향신료 생강 3.2%로 나타남
- 이에 대해 뉴질랜드 1차 산업부(MPI)는, 지난 6년 동안 Daily Organics가 그들에게 제공한 테스트 보고서와 작년에 실시한 검사를 바탕으로 알코올 함량이 높아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발표함



Daily Organics Kombucha's Chai Spices and Ginger (Source: Re: News)

○ 회수 식품명 : 팸스 브랜드 프로즌 베리

- 회수일 : 2022년 10월 4일
- 회수제품 : Pams 브랜드인 Mixed Berries, Two Berry Mix, Smoothie Berry Mix 및 모든 냉동 Raspberries 종류
- 회수 사유 : Martha's Backyard Ltd는 살모넬라균의 존재 가능성 있어 회수
- 비고 : 세르비아산 수입 냉동 베리와 관련된 A형 간염의 감염으로 인한 예방책으로 회수



○ 회수 식품명 : 코스트코 브랜드 슈레드 치킨(Shredded Chicken)

- 회수일 : 2022년 11월 11일
- 회사명 : Source and Supply Food Co. Ltd
- 회수사유 : 유효기간 표기가 잘못



- 회수 식품명 : 마더 어스 브랜드 칠리 크리스피 믹스
 - 회수일 : 2022년 11월 17일
 - 회사명 : Prolife Foods Ltd
 - 회수사유 : 알러지 성분인 참깨를 제품 포장에 기재하지 않음



- 회수 식품명 : 파빌리온 브랜드 초콜릿 퍼지 슬라이스
 - 회수일 : 2022년 11월 29일
 - 회사명 : Gluten Free Holdings Ltd
 - 회수사유 : 알러지 성분인 우유를 제품 포장에 기재하지 않음



Pavillion brand 2 Beef & Gravy Pies (360g)

- 회수 식품명 : 양귀비 씨앗
 - 회수일 : 2022년 11월 30일
 - 회사명 : Davis Trading Company Ltd
 - 회수사유 : 검은 양귀비 씨앗을 식품 제조사에만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허가를 받았으나 일반 소매점에 제공함. 양귀비 씨앗에는 높은 수준의 오피오이드(opioid)가 포함되어 있음. 일반 가정에서 일반적인 요리와 베이킹에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는 없으나, 양귀비 씨 차를 마시는 것을 포함하여 양귀비 씨를 다량 섭취하는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다고 뉴질랜드 식품안전청은 경고함. 양귀비 씨 차를 섭취하고 이상하거나 심각한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은 긴급한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함



Essenté brand Poppy Seed



Fresh Line brand Poppy Seed



Farm by Nature brand Poppy Seed



Wholesale Foods brand Poppy Seed

* 출처 : 뉴질랜드 식품안전청(New Zealand Food Safety)

IV FTA 이행이슈 관련

(해당없음)